

# 우리나라의 1인당 알코올 소비량

※ 본 내용은 6월 19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은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12년기준 1인당 평균 9.16리터 소비 -

한국주류산업협회(회장 권기룡)가 2012년에 국내주류출고량 및 수입량 등을 근거로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알코올 소비량을 측정한 결과 1인당 평균 9.16리터(공식소비량<sup>1)</sup> 9.12리터, 비공식소비량<sup>2)</sup> 0.04리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통계를 기준으로 지난해에 조사 발표한 1인당 알코올 소비량(9.18리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2007년에 비해서는 3.4%가 감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음주는 식당 등 외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술을 권하는 문화로 인해 버리는 술의 양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이 마시는 1인당 알코올 소비량은 9.16리터 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우리나라 15세이상 1인당 알코올 소비량

구분	2007년	2008년 <sup>3)</sup>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인당 소비량(L)	9.48	9.67	9.10	9.20	9.18	<b>9.16</b>
2007년 대비(%)	100	102.0	96.0	97.0	96.8	<b>96.6</b>

1) 공식소비량 = (출고량+수입량) × 주종별 순알코올환산계수 / 15세 이상의 인구수

2) 비공식소비량 = 해외 여행객의 면세반입량 × 주종별 순알코올환산계수 / 15세 이상의 인구수

※ 국제통계연보(국제청), 인구통계 등 정부공식지표 사용

3) 2008년 소비량이 증가한 것은 2008년말 소주가격 인상에 앞서 일시적 가수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임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을 주종별로 보면 증류주가 6.07리터(소주 5.69리터, 증류식소주 등 기타증류주 0.38리터), 맥주 2.01리터, 와인 등 기타주류가 1.04리터인 것으로 분석되어 2011년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류주는 2007년 이후 2011년까지는 감소되었으나 2011년 소비량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맥주는 2007년 이후 2010년까지 감소하였으나 2011년부터 다소 증가하였다.

주종별 1인당 공식 알코올 소비량 비교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맥주	2.03 (22%)	2.09 (22%)	2.01 (22%)	1.94 (21%)	1.99 (22%)	<b>2.01</b> <b>(22%)</b>
와인	0.19 (2%)	0.17 (2%)	0.14 (2%)	0.14 (2%)	0.14 (2%)	<b>0.13</b> <b>(2%)</b>
증류주	6.71 (71%)	6.86 (71%)	6.29 (69%)	6.19 (67%)	6.06 (66%)	<b>6.07</b> <b>(66%)</b>
기타주류	0.51 (5%)	0.5 (5%)	0.63 (7%)	0.89 (10%)	0.95 (10%)	<b>0.91</b> <b>(10%)</b>
합계	9.44 (100%)	9.62 (100%)	9.07 (100%)	9.16 (100%)	9.14 (100%)	<b>9.12</b> <b>(100%)</b>

한편 OECD에서 2013년 11월에 발표한 보고서(Health at a Glance)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1인당 평균 알코올소비량은 8.9리터로서 전체 OECD 회원국 34개국중 22위로 나타났다.(붙임참조)

OECD에서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의 우리나라 1인당소비량은 9.0리터였던 것과 비교하면 0.1% 감소한 수치이며 회원국중 22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OECD 34개 국가의 평균 1인당 소비량 9.4리터보다 약 0.5리터가 적은 수준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의 음주소비량을 평균하여 발표한 보고서(Global status report on alcohol and health)에서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을 1인당 12.3리터(공식소비량 9.8리터, 비공식소비량 2.5리터)로 조사국가 중 15위로 발표하였으나 이는 실제 통계수치와 크게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WHO는 우리나라의 1인당 비공식 알코올 소비량을 전체 알코올 소비량의 20%에 해당하는 2.5리터로 분석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제조는 법령에 의해 국가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고, 밀주나 가정에서 직접 술을 제조하여 음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전혀 없고 또한 공식 소비량도 주류제조 및 수입량과 비교할 때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청소년 및 임신여성 등의 음주, 음주운전 및 과도한 음주 등 유해한 주류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시민단체 및 회원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OECD 국가의 1인당 공식 알코올 소비량

순위	OECD 회원국	소비총량(ℓ)	순위	OECD 회원국	소비총량(ℓ)
1	룩셈부르크	15.3	18	슬로바키아	9.9
2	프랑스	12.6	19	핀란드	9.8
3	오스트리아	12.2	20	뉴질랜드	9.5
4	에스토니아	12.0	21	네덜란드	9.4
5	독일	11.7	22	한국	<b>8.9</b>
6	아일랜드	11.6	23	칠레	8.6
7	체코	11.5	24	미국	8.6
8	포르투갈	11.4	25	그리스	8.2
9	스페인	11.4	26	캐나다	8.0
10	벨기에	10.8	27	스웨덴	7.4
11	헝가리	10.8	28	아이슬란드	7.3
12	덴마크	10.6	29	일본	7.3
13	슬로베니아	10.6	30	이탈리아	6.9
14	폴란드	10.4	31	노르웨이	6.6
15	호주	10.0	32	멕시코	5.1
16	스위스	10.0	33	이스라엘	2.4
17	영국	10.0	34	터키	1.5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OECD 국가 전체 평균 9.4리터